

Sector Comment

K-POP Rise & Release

2025.09.08

장지혜 엔터·미디어·음식료 02-709-2336 / jihye.j@ds-sec.co.kr, 강태호 연구원 02-709-2666

K-pop R&R. 커리어 최초 기록으로 여는 TREASURE의 2막

K-pop R&R은 K-pop 아티스트의 활동 성과 및 업종 내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자료입니다. 주목할 만한 아티스트의 성과(Rise)와 음반/투어 일정 공개 소식(Release)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.

■ 트레저(TREASURE) 미니 3집 <LOVE PULSE> 초동 최초 밀리언셀러 달성, 세번째 글로벌 투어도 시작

- 트레저 미니 3집 <LOVE PULSE>는 9/1 발매 후 4일차에 초동 100만장 돌파. 9/1~9/6 누적 104만장 기록
- 2020년 8월 데뷔 후 5년만에 처음으로 초동 밀리언셀러를 돌파한 것으로 트레저 팬덤 확대 의미
- 이전 음반 성과는 정규 2집(23년 7월) 초동 64만장/누적 190만장, 스페셜 미니(25년 3월) 초동 71만장 기록
- 트레저의 스포티파이 월간청취자수는 9/6 기준 205만명(+1% MoM)을 기록하며 상승 중
- 또한 트레저는 10/10~12 국내 KSPO돔 공연을 시작으로 3번째 글로벌 투어 <PULSE ON>(2025~26) 진행
-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은 국내 3회, 일본 5개 도시 15회 공연으로 총 18회 공연 기준 29만명 모객 추정
- 향후 타이베이, 자카르타, 마닐라, 싱가포르, 홍콩, 방콕 등 일정 추가 공개 예정

■ YG엔터는 블랙핑크 글로벌 투어 성과에 더해 트레저와 베이비몬스터까지 저연차 라인업 수익화 긍정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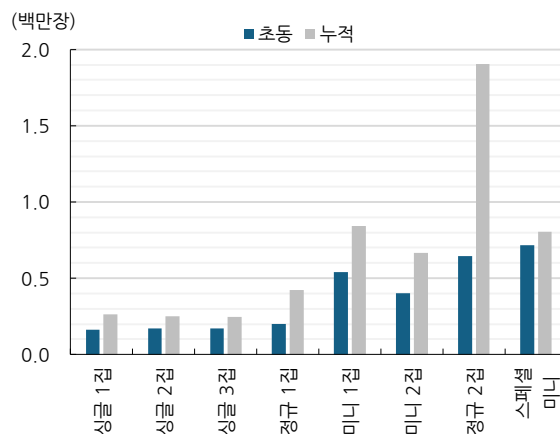
- YG엔터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트레저가 지난 5년 청소년기의 1막을 마치고 2막을 새로 시작한다고 언급
- 트레저는 이번 공연에서 태국 스타디움 첫 입성, 오사카 돔투어 등 글로벌 공연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
- YG엔터의 또다른 저연차 라인업 BABYMONSTER는 10/10 미니 2집 발매, 자체 콘텐츠 등 활발히 활동 중
- YG엔터는 3분기 BLACKPINK의 글로벌 투어, 음원, MD 실적과 함께 저연차 활동 이어지며 실적 호조 전망

그림1 TREASURE의 미니 3집 <LOVE PULSE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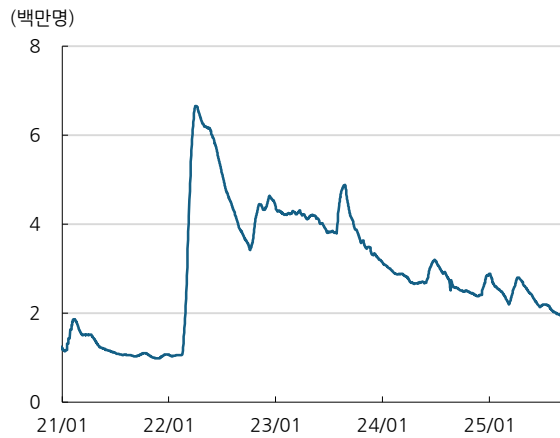
자료: YG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TREASURE 앨범 판매량 추이(국내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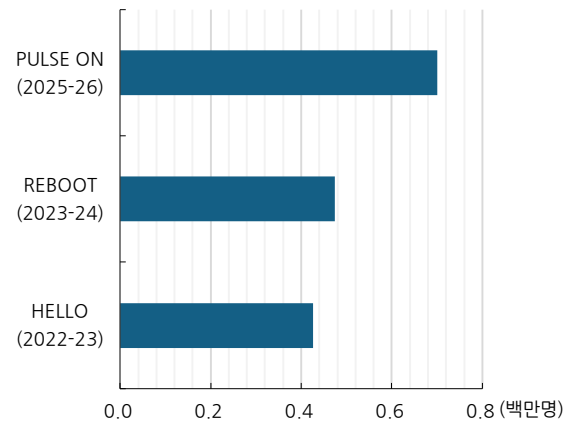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터차트, 씨클차트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TREASURE의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수 추이



자료: Spotify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4 TREASURE의 공연 규모 추이 및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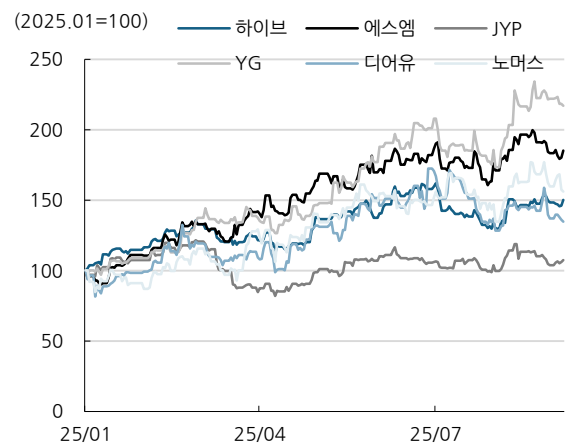
자료: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

그림5 이전 대비 규모를 확대한 TREASURE 팝업스토어



자료: YG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6 주요 엔터 기업 주가 추이



자료: FnGuide,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

-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